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말까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문혜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민자

目次

I. 서론	2. 우아성
II. 검정색과 색채 이미지	3. 관능성
1. 이미지와 색채	4. 금욕성
2. 검정색의 특성	5. 비애성
3. 검정색의 이미지	IV. 요약 및 결론
III. 검정색의 이미지의 복식사적 고찰	참고문헌
1. 위엄성	ABSTRACT

I. 서론

복식에 있어서 색채는 복식의 조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복식에서 색채가 지니는 의미와 상징성은 복식이 단순히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적·상징적 가치를 지닌 연구 대상임을 알게 해준다. 각 시대와 국가, 민족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다양하지만 여러 색상 중에서도 검정색은 색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고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상이었으며, 특히 다른 어느 색상보다도 패션의 연대기를 지배해온 주된 색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옷과 관련지어 Castilione(1528)는 천박함이 없는 개성을 확립한 검정색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¹⁾, 현대에 들어와 Barthes(1983)는 '패션에서 검정색은 완전한 색상이다' 라고 했으며²⁾, Hollander(1988)³⁾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른 어떤 색상의 착용보다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결같은 흐름이라고 함으로써 검정색이 독특한 힘과 개성을 지닌 색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Hollander⁴⁾가 '모드가 단지 모드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듯이 패션은 이미지에서의 패션이지 옷에서의 패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Augustine Hope and Margaret Walch, The Color Compendium (N.Y.: Van Nostrand Reinhold, 1990), p.119.
 2) John Harvey, Me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12.
 3)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365.
 4) Ibid., p.390.
 5) John Berger는 이미지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가 언어보다 훨씬 정확하고 풍부하다고 하였다. (John Berger, Way of Seeing, 『이미지』 (서울: 동문선, 1993), p.29.)

선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듯이 의복이 전달하는 이미지⁵⁾의 힘은 강하며, 의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색채의 관점에서 볼 때 옷을 매개체로 한 검정색은 착용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에 옷 자체의 역할보다 더 효과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검정색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색채로 인식되었지만 검정색이 지닌 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특별하게도 복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오랜 시기에 걸쳐 검정색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독특한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Harvy(1996)가 '만약 검정색이 패션의 주요 요소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검정색이 강하게 특징지어진 색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검정색이 과거에 만든 다른 주장의 잔여와 기억을 유지하기 때문이다'⁶⁾라고 했듯이 검정색은 지속적인 이미지의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이와 같이 검정색은 독특한 미적 가치와 이미지를 가진 색상이므로, 본 연구는 시대를 초월하는 색상으로 채택되어져온 검정색의 복식에서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복식사를 통해 이를 고찰함으로써 복식에서 검정색이라는 색채가 가지는 이미지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금까지 복식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져온 색채의 이미지를 연구함으로써 미적 대상인 복식의 조형성을 색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검정색과 색채 이미지

1. 이미지와 색채

(1) 이미지⁷⁾

이미지란 상, 영상, 심상, 표상, 개념, 관념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닌 말로 좁은 의미로는 상징(symbol)을 뜻하기도 하며⁸⁾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 재생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상, 즉 사물에 대한 마음의 모상을 말한다. 그리고 가시적 형태나 울동 등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 감각, 연상과 같은 총체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지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John Berger(1972)는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최초에 나타나서 받아들여진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잠깐 동안 수세기나 떨어진 외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미지는 사물을 보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든지 그 이미지에 관한 판단이나 지각은 우리들 자신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미지는 X가 어떻게 Y를 보았는가하는 의미의 대응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이미지는 과거의 어떠한 유적이거나 문헌보다도 당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언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하다고 하였다⁹⁾.

Rawson은 이미지를 시각적 구성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집중시키는 통일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미지란 대상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여 몇 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단순화시켜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과정인 지각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 그래서 이윤주(1992)는 이미지란 주어진 자극에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 환경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6) Harvey, op. cit., p.21.

7) 그 어원은 라틴어의 imago로 닮아있는 것. 상(像)을 의미한다. (박영근, 『세계철학 대사전』(대구: 고려출판사, 1996).)

8) 시사영어사 편집위원회, 『랜덤 하우스 영한 대사전』(서울: 시사영어사, 1996).

9) Berger, op. cit., pp.28-29.

10) Philip Rawson, Creative Design: A New Look at Design Principles (MacDonald Orbis Book, 1987), p.28.

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각되어서 어떠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형태, 형상 또는 감각적 표현체, 즉 실제의 시각적 표상이라고 하였다.

(2) 색채 이미지

색은 시지각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현상을 말하며,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어졌거나 그와 같은 지각현상과 마찬가지로의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이 물리적 현상임에 비해서 색채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색채는 외적 및 내적으로 주어졌던 것에 의해서 성립하는 시지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천체나 물질을 형성하는 분자처럼 색은 힘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색사이의 관련성은 색의 에너지(강도), 채색면의 질량(크기), 색상간의 거리라는 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고 영향을 받는다¹²⁾. 이 세가지 요인 중에서도 색의 강도는 빛이라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며 채색면의 크기와 관계되어 색이 가지는 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테의 기본색에 대한 생생한 문학적인 묘사와 같은, 색채의 이미지 표현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색채는 저마다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닌다. 이렇듯이 지각된 색으로서의 색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거나 다루는 색이 어떤 물체와 함께함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느낌이나 판단, 연상 등의 이미지가 함께 따라 다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색으로부터 자극되어졌을 때 거리감이나 표면의 질감, 대조성, 상

징성 등이 그 색의 지각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색채가 주는 이미지는 연상, 상징과 관련되어 언어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색채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채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관계하는 정서적인 반응과 민족이나 지역이 관련되는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¹³⁾.

이상에서 볼 때, 색채 이미지란 색채라는 시각적인 자극이 지각화의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진 후 인간의 경험이나 기억 또는 개인의 생활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그 색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각되어 형성되는 형상, 의미 또는 감각적 표현체, 즉 시각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검정색의 특성

(1) 검정색의 정의

검정색은 먼셀의 색채표시방법에 따른 한국공업규격의 기본색 이름 중의 하나로 영어로는 Black이며, 색채의 3속성 중 색상은 없고 명도는 가장 낮으며 채도가 없는 일차원 색채인 무채색이다¹⁴⁾. 검정색은 흰색과 함께 색채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부터 인식되어진 색상이었으며, Berlin과 Kay(1969)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여러 지역 98개 종족의 언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색이름이 검정색과 흰색으로부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빛의 부재, 또는 물체에 의한 빛의 반사나 전달

(이운주,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아르테코 시대를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9.에서 재인용)

11)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1997), p.10.

12) Yves Charnay, "색채의 노래 -색채의 구성." 한국류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97. 10): 1.

13) William Charles Libby, Color and the Structural Sense, 이양자 (역), 『색채와 구성적 감각』 (서울: 미진사, 1992), p.198.

14)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95), pp.140-153.

의 부재는 검정색의 인상을 불러일으키며, 검정색은 색조상으로 아주 순수한 무색의 칠흑(pitchblack)에서 아주 어두운 진회색(charcoal gray)까지 뿐만 아니라 따뜻한 것에서 차가운 것까지 그 범위가 넓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론적인 흑체가 있지만 실제로 검댕이나 검정색 벨벳과 같은 가장 어두운 물체도 적어도 3%의 입사 복사를 하며, 아주 어두운 회색은 흰색 또는 밝은색과의 대조 때문에 검게 보인다.

검정색은 색상이 없는 색채이지만 시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색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이므로 물론 색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페디(Peddi)는 '검정색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심리학적 면에서는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헬름홀츠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그 또한 '검정색은 실제로 존재하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검정색이라는 느낌이 비록 빛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검정색을 보는 느낌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¹⁵⁾ 이렇듯 검정색은 다른 여러 색상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독특한 색으로 인지되어 왔다.

(2) 검정색과 빛, 재질감의 관계

검정색은 물리적 측면에서 가지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측면인 색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검정색은 조형 예술의 기본적인 요소¹⁷⁾인 색, 빛, 형 중에서 빛과 관련되어 검정색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므로 빛과 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검정색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 다른 디자인 요소인 재질감과의 관련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빛은 현란함이나 암흑의 인상 등을 제외하고는 그 물리적 성질상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이 드물며 대체로 형이나 색과 결합해서 인식된다. 그리고 색은 빛에 의해 생성되며 색의 세계는 빛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빛이 소멸되면 색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색과 빛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또 빛은 시각에 의한 재질감과 관련되어 그 반사 유무와 정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게도 한다.¹⁹⁾ 따라서 검정색이라는 색채도 빛의 반사에 따른 에너지(강도)와 물체 표면의 재질감에 따라 그 힘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복식에서 검정색의 옷감은 그 재질에 따라 대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파일직물인 벨벳과 평직으로 직조된 면(cotton)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벨벳의 재질과 면의 재질 사이의 표면 빛반사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검정색의 벨벳 옷감은 표면에 있는 많은 털들에 의한 빛의 반사로 인해 옷감 표면의 광택이 풍부해지면서 면으로 된 검정색의 옷감보다 더 짙으면서 부드럽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검정색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평직의 검정색 면직물은 표면에 광택이 없음으로 인해 벨벳과 비교할 경우 검정색이라기 보다는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의 느낌과 건조하면서 약간 빛바랜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어두우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무채색의 검정색이 벨벳이라는 소재의 표면 특성으로 인해 화려함이나 위엄, 관능, 우아함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며, 광택이 없는 평직의 면직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수수함, 비애, 절약 등의

15) 박은주, op. cit., p.177.

16) Faber Birren, 『색채심리』, 김화중(역) (서울: 동국출판사, 1993), p.235.

17) 竹内敏雄, 『미학·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역) (서울: 미진사, 1993), p.355.

18) Ibid., op. cit., p.313-314.

19) 이은영, op. cit., p.188.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빛과 재질감은 검정색이 가지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검정색의 이미지

(1) 검정색의 일반적인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약 4000년 동안 고대인들이 사용한 팔레트는 단순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유럽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마야와 잉카 문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대 문명에서 거의 똑같은 범주의 색상²⁰⁾이 사용되었다²¹⁾.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아시리아인들은 지구상의 인종을 빨강(그들 자신)·노랑(아시아인)·하양(유럽인)·검정(흑인)의 네가지 색으로 구분지었으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하양(브라만)·빨강(크샤트리아)·노랑(바이사)·검정(수드라)의 4색으로 성직자·무사(왕족)·상인(서민)·노예 등의 신분을 구분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우주 자체가 다섯 가지로 구분된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고 이 분할된 시간과 공간이 파랑·빨강·노랑·하양·검정의 5색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왔다.²²⁾ 이와 같이 색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있어왔으며 특히 검정색은 흰색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색상으로 여겨져 왔다.

검정색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근원적인 가치는 어둠, 밤과의

연관과 죽음과 관계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와의 연관에 있다. 몇몇 대륙의 원시 사회에서 안료를 피부에 덕지덕지 바르게 뒹에 따라 검정색은 죄악, 죽음, 질병, 그리고 마법, 불행과 관련지어졌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은 죽음의 모습으로 적을 위협하고 커보이는 효과를 위해 자신들을 검게 만들었다. 검정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한 있었는데, 그것은 간절히 기원되어지는 검은 비구름과, 새로운 발생을 약속하는 검은 총적 진흙과의 연관이었으며, 밤의 욕망과 풍부한 육체적 사랑과도 연관이 있었다²³⁾. 이렇듯이 검정색은 생명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기도 했지만 여전히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허무, 절망, 질병, 죽음, 암흑, 밤, 애도, 슬픔, 엄숙함, 정지, 부정, 파괴, 죄악, 금욕, 수치, 불결, 배반, 저주, 불안, 공포, 불행, 불길함, 음울, 억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왔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색상²⁴⁾으로 인식되어 왔다.

검정색이 지닌 상징적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검정색이 생명의 뜻을 지닌 색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어두움에서 새 날이 밝아오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서적 반응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검정색은 생명의 근원인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검정색은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상중에 검정색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서양

20) 빨강색, 황금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 자주색, 흰색, 검정색

21) Faber Birren, Color and Human Response, 김진한(역),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사, 1996), p.78.

22) 박은주, op. cit., p.106.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색상을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규명한 원소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했다.

23) Harvey, op. cit., p.41.

24)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서양보다 검정색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가지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검정색을 색이 없는 상태인 무색의 세계로 보았다. 욕망을 뜻하는 색(色)은 남녀간의 정욕, 색욕, 여색을 뜻했고 악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색이 없다는 것은 바로 동양적인 의미에서 이상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송명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67.)

에서는 검정색이 상을 상징하고 슬픔을 표시하는 색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이 애도의 의미를 지녔던 검정색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에 대한 중요성이 경시되면서 상복 또한 이전보다는 그 중요성이 감소되어 가게 됨에 따라 슬픔보다는 분노, 공격, 반항을 나타내는 색채가 되었다. 또한 검정색은 현대에 이르러 대량생산되면서 자연의 색조보다는 인공적 창조물들과 잘 어울리는 도시 환경의 색상이 되었고 전 세계가 선호하는 색상이 되었다²⁵⁾.

(2) 복식에 있어서 검정색의 이미지

초기에는 검정색이 가진 상징적 중요성이 미적인 흥미에 우선해왔기 때문에, 검정색은 유럽에서 처음에는 죽음의 색상으로서 시작했고 장례식을 위해서 적합한 색상이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관습은 지중해의 고대 풍습의 유산이었다. 후에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삶을 따르게 되었을 때 검정색은 사제, 수도자와 신의 성직자들의 옷에 적절한 부정적인 색상으로 착용되었다. 그러나 유럽 패션이 주로 프랑스와 버건디 궁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던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검정색만의 독설적인 미는 재봉사의 외상제작에서 색상을 위한 박(foil)²⁶⁾으로 인지되어졌으며, 동시에 르네상스의 여명기 무렵에 그것은 착용자의 얼굴의 개인적인 특질을 증진시키는 독특한 색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²⁷⁾. 반면 17세기의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현세에서의 물질적 만족을 죄악시하고 내세 위주의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어두운 색상이라는 측면에서 경건한 검

정색의 의상을 주로 소박과 검소의 상징으로 착용했다²⁸⁾.

유럽의 국가들이 대체로 검정색을 패션으로 수용할 때마다 그 시기가 그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이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며, 19세기에는 영국의 많은 섭정시대 소설가들이 댄디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검정색 의복의 패션을 시작했다²⁹⁾. 그리고 남성들의 의상이 간소해지고 주로 검정색과 같이 어두운 색상을 착용하는 경향과 함께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의상은 밝고 주로 흰색이었던 탓에 이 시기에 검정색은 흰색이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에 반하여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여겨졌다. <그림 1>³⁰⁾ 그리고 19세기 후반부에는 검정색의 관습적이고 수수하며 자기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 사무원, 법률가, 의사, 목사, 연장자들에 의해 검정색 의상이 착용되었다³¹⁾. 이렇듯이 검정색은 복식사를 통해 두드러지는 색상이며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색



<그림 1> Edouard Maent, The Balcony, 1868.

25)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 Vriago Press, 1985), p.189.

26) 대조되어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것

27) Hollander, op. cit., pp.365-366.

28) 이은영, op. cit., p.135.

29) Wilson, op. cit., p.186.

30) Harvey, op. cit., p.23.

31)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역),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1986), p.178

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식에 있어서 검정색의 이미지의 범주화

검정색은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기도 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색상으로 알려져 왔다. 검정색은 복식이라는 대상을 통해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부정적 측면의 이미지 외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패션 색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어 검정색은 상복과 사제나 성직자의 의상에 사용되었으며, 유럽에서 패션을 인식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에 와서야 검정색에 대해 미적인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검정색 의상이 본격적으로 확용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에 검정색을 패션으로 수용했으며, 그런 시기의 유명한 화가들과 소설가들의 작품을 통해 검정색 의상이 권위적이고 위엄적이거나 우울하기도 하며 우아하기도 하고 성적인 매력을 전달하거나 겸손하고 금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검정색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복식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고대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복식사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들을 정리해보면, 검정색은 복식사에서 크게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역설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시대에도 이 대조적인 이미지 모두를 나타내는 색상이었다. 따라서 검정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의 두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먼저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복식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는 슬픔의 복식인 상복에서 나타나는 비

애성과, 금욕, 겸소, 절약, 비천함의 의미로 확용된 검정색 의상에서 나타나는 금욕성의 2가지 이미지를 범주화시킬 수 있고,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복식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인 엄격하고 숭고한 의상에서의 위엄성, 화려하고 아름다운 검정색 복식에서의 우아성, 관능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가지 이미지에 세가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하여 검정색의 이미지를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에로티시즘), 금욕성, 비애성의 다섯가지로 범주화시켰다. 이와 같이 추출된 검정색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다음 장에서 각각의 범주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검정색의 이미지의 복식사적 고찰

본 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살펴본 검정색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고대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를 통해 추출된 검정색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각각의 이미지 범주별로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던 시대를 중심으로 복식을 통해 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위엄성

위엄성은 대상이 엄숙하고 장중하며 고귀한 기품이 있고, 엄격하며 숭고한 존엄을 가질 때 전달되는 감정으로, 검정색의 의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미지이며 미적 범주에서의 숭고(sublime)의 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³²⁾. 복식에서 숭고미의 추구는 수직적 강조, 면적의 강조 등 복식을 이용한 신체 확장의 효과로 인간의 위엄과 지위를 과시하고 자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상 복식에서 가장 웅대한 느낌을 주는 르네상스 시대³³⁾에는 러프 칼라의 사용과, 남성은 주로 검정색,

32) 이은영, op. cit., pp.21-23.

여성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주류로 함으로써 복식이 더욱 권위적으로 보였으며 위엄이 고조되었고, 면적의 강조를 통한 인간의 존엄이 복식의 숭고미로 표현되었다³⁴⁾.

유럽의 국가들이 대체로 검정색을 패션으로 수용할 때마다 그 시기가 그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이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며, 이것은 15세기 버건디 궁정, 15·16세기 베니스, 16세기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을 통해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검정색의 제국적인 엄격함과 위엄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그림 2>에서 버건디의 공작 Philip the Good이 그의 몇부린 신하들 사이에 검정색 벨벳 가운, 검정색 더블릿, 검정색 후드와 검정색 바지로 완전히 검정색을 차려입고 처음 나타났을 때 그는 금욕적인 동시에 악마같이 보였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패셔너블한 의상에 의해 화려하고 권위있으며 위엄적인 인물로 보였다. Philip의 치세동안 버건디는 강력했으며 그의 궁정과 귀족정치는 유럽을 통해 패션에 영향을 미쳤고, 버건디 패션은 검정색의 사용과 남녀 모두 똑같이 옷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³⁶⁾.

이 무렵부터 검정색 의상 또는 검정색을 포함한 외양은 많은 개인의 초상화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종종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검정색이 패션색상으로써 가치를 지니기 시작했다. 성공한 상인 계급의 부에 기초한 힘으로 유지되었던 버건디 사회는 15세기에 이르러 상인 역시 보통 검정색 의상을 착용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검정색은 걸치레를 포기하게 만드는 보여줌을 통해 상인으로서의 성공을 과시하는 역설적인 색상이었으며, 그들을



<그림 2> Philip the Good, Duke of Burgundy, 1448.

모욕없이 위엄있고 믿음직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는 색상이었다³⁷⁾. 이렇듯이 검정색 가운을 입은 상인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상인으로 뛰어난 도시 베니스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베니스는 주로 검게 차려입은 도시였으며, 베니스의 귀족은 다른 나라의 귀족들과 달랐기 때문에 검정색은 먼 옛날부터 상인의 색이었고, 왕과 궁전에서 검정색을 입기 전에 베니스인들은 검정색을 착용했다³⁸⁾.

16세기에 스페인은 남성 의상에서 지배적이었던 검정색을 위한 패션을 강조했으며, 스페인 의상의 지배적인 특징은 질세성과 엄격한 우아함이었으며, 비록 화려하기는 했지만 소재는 항상 어두운 톤이었다. 의복에 대해 검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성 로마 황제 Charles V <그림 3>의 개인적인 취향과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한 스페인의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검정색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기호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1556년 Philip II <그림 4>가 Charles V를 계승했을 때 스페인 궁정은 모든 유럽이 선호하는 모델이 되었고, 예술을 사랑하고 검정색 스타일을 사랑한 스페인 군주 Philip

33)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from the Ancient Egyptians to the Twentieth Century*, 이종남 외(역), 『복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261.

34) 최수현, *op. cit.*, pp.64-65.

35) Harvey, *op. cit.*, p.156.

36) *Ibid.*, pp.54-55.

37) *Ibid.*, pp.63-65.

38) *Ibid.*, pp.66-69.



<그림 3> Titian, Charles V, 1548.



<그림 4> Greco, The Dream of Philip II



<그림 6> Circle of Hans Eworth, Lady Mary Sidney, c.1555.



<그림 7> unknown artist, Robert Dudley, Earl of Leicester, c.1575-80.



<그림 5> Diego Velazquez, Philip IV of Spain, c.1656.

IV <그림 5>는 1623년 검정색을 스페인 궁정 의상을 위한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색상으로 만들었다. 이렇듯이 <그림 2>에서 Philip the Good이 1450년대에 착용한 의상, Charles V가 <그림 3>에서 착용한 의상, <그림 4>에서의 Philip II가 자신의 거의 모든 초상화에서 착용한 의상, <그림 5>에서 Philip IV에 의해 착용된 의상 사이의 2세기에 걸친 색상에는 정체성(identity)이 유지되고 있다³⁹⁾.

스페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Henry II와 그의 아들도 스페인을 따라 항상 검정색

을 착용하였으며, 스페인의 의상은 이태리를 통해 영국에까지 유행하게 되어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말기에는 여왕 자신도 검정색 드레스를 착용했다⁴⁰⁾. 16세기 후반까지 검정색 의상이 스페인 궁정에서 남녀 공용으로 유행되었을 때 남자들은 검정색 겉옷의 목이나 소매부분에 흰색 옷이 조금 나오도록 옷을 착용하였고, 의복의 색상이 밝은 색상에서 검정색과 다갈색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금욕의 시기였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시기의 옷들은 16세기의 전반기에 입었던 것들보다 더욱 사치스럽고 위엄성이 있었다⁴¹⁾.

<그림 6>,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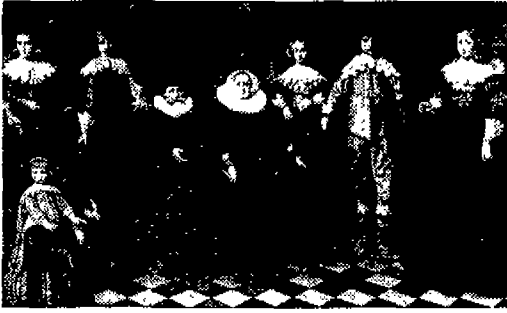
17세기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태리와 스페인은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패권을 상실한 반면, 권위와 전체주의의 과정에 있었던 프랑스와 번영의 '황금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던 신생 독립국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그들의 지배권을 강요하게 되었다⁴²⁾.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초상화에서 풍속화에 이르기까지의 회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황

39) Ibid, p.72.

40) Lurie, op. cit., p.72.

41) J. Anderson Black and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세계 패션사』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7), p.196.

42) Boucher, op. cit., p.251.



〈그림 8〉 D. Santvoort, Burgomeister Dirk Bas Jacob and his Family, 1635.

금시대에 주로 흰색 러프가 있는 검정색 옷을 착용했고, 루벤스, 할스, 렘브란트 등의 기라성같은 예술가들을 길러내게 되었으며⁴³⁾, 그들은 위엄성을 주고 얼굴을 강조하는 검정색 옷을 착용한 귀족들을 그렸다. 〈그림 8〉

19세기에 섬세한 멋쟁이의 색상들은 위엄, 성숙, 본질, 절제, 정직의 표현에 가장 적절한 색상인 검정색을 위해 대부분 포기되었다. 번영하는 부르주아 취향은 멋있는 절제의 정확한 특질과 자기 경시적인 공헌을 위해 검정색을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검정색은 여성으로부터 남성성을 분리시켰고, 〈그림 9〉에서 보이듯 정치와 사업에서의 남성들은 단조롭고 수수하게 재단된 엄숙한 검정색 의상을 입고서 공적인 일을 수행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의 우두머리와 장관들은 중세 정치가들의 화려한 의상과는 대조적으로 미적으로 엄격한 의상을 공적으로 착용했다⁴⁴⁾.

이상에서 볼 때, 검정색은 서양의 복식의 역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착용자의 위엄과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색상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위엄적인 색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위엄성과 숭고미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공통적인 특질을 살펴보면 밝고 화려한 색상 속에서 검정색이 단독으로 대조를 이루거나 검정색 자체가



〈그림 9〉 19세기의 남성복

가지는 색감의 깊이와 강한 색에너지에 의해 힘이 두드러지고 외곽선이 분명한 한정적인 형태이며, 대체로 빛에 의한 표면반사로 화려함과 부피감을 가지는 벨벳이나 실크와 같은 직물로 되어 있고, 인체를 과장하는 형태로 부피가 크며, 어떤 경우에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흰색 러프 칼라가 더해지기도 했다.

2. 우아성

우아성이란 우아하고 세련되며 기품이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 고상한 미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범주화시킨 것으로서 미적 범주에서의 우아와 우미, 그리고 협의의 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미와 유사한 범주로 슈크가 있으며, 댄디즘 역시 우미로 파악할 수 있다. 우아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검정색에 대해 미적인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검정색을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무렵부터 검정색에 부여된 이미지이며, 검정색의 우아성은 대표적으로 19세기의 댄디와, 검정색과 흰색의 조화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리고 검정색 벨벳이나 실크는 화려한 옷차림에 사용되고 슈크나 우아미를 나타내며, 19세기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43) Payne, op. cit., p.371.

44) Hollander, op. cit., p.380.



〈그림 10〉 Horace Vernet, Madame Eynard, 1831.



〈그림 11〉 Eugene Delacroix, Louis Auguste Schwiter, 1826.

흑백 드레스의 여인을 쉬크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19세기초 영국의 섭정 황태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귀족들에게 복장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대두되었는데, 댄디라 불린 이들은 낭만주의 유형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자의식이 강한 그룹 중의 하나였으며, 이들은 몸치장과 의복 착용법에 있어서 최고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남성이었다.〈그림 11〉 댄디는 19세기 초기를 통해 단순하고 어두우며 특히 검정색의 의상을 패셔너블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스타일은 화려한 의상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소재의 세밀한 점검과 재단의 꼼꼼함이 포함된 과시의 형태였다⁴⁵⁾.

영국에서 발생한 댄디즘은 새로운 물결을 타고 프랑스로 전해져 파리 사교계의 남성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증반에 Baudelaire는 댄디즘에 매료되어 정신적인 존엄성과 유미 정신을 더했으며, 재봉사들의 무례함에 대해 검정색 옷을 입었다. 검정색이 현대적인 주인공의 황폐화된 존재와 세기 자체를 애도하는 시기에 적합한 색이었기 때문에 19세기에 영국의 많은 섭정시대 소설가들 또한 댄디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검정색

의복의 패션을 시작했다. 댄디들은 복식을 통해 일반 대중과 구분되는 그들의 정신적인 우월성을 표현했고, 이에 검정색과 흰색은 매우 효과적인 색상이었다. 그들은 프록코트, 르망고트, 케이프, 크라바트 등의 아이템에서 주로 검정색을 사용했으며, 이는 순백의 슈미즈와 대조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은 의복색에서 가능한한 화려함을 배제하고 짙은 톤의 색상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영국 신사복 유행의 기본이 되었으며, 후에 전세계 남성복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⁴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우선 화려한 벨벳이나 실코의 소재로 되어 있거나 흰색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대조를 통해 단정함과 세련됨의 이미지를 주며, 수트의 경우에는 몸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여성 드레스의 경우에는 장식을 통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인 대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

45) Harvey, op. cit., p.31.

46) 송명희, op. cit., pp.20-21.

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에로티시즘과 유사한 개념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정속성이나 비정속성과 같은 복식의 착용 동기에서부터 옷과 관련있으며 복식의 형태 변화나 특정 색상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여러 색상들 중에서도 검정색은 에로티시즘의 전통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강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색상이다.

아프리카의 상징주의에서 검정색은 밤과 무(無)와 연관되었으며, 인류학자들은 검정색과 빨강색이 자연적인 상징에서 드문 것이라고 말한다. 검정색은 차갑고 위험하며 섹시하고, 죽음, 악, 타락, 반항, 그리고 죄와 연관된다. 또 긍정적인 의미로 검정색은 밤의 욕망과 풍부한 육체적 사랑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중세 이후로 검정색은 악과 연관되어 왔으며, 지옥의, 악마같은 검정색의 개념은 사악하게 에로틱한 느낌을 준다. '악의 꽃'의 저자 Charles Baudelaire는 근대적 삶에서의 검정색 의상은 심각하고 가혹할 뿐 아니라 사악하게 아름답다고 했다⁴⁷⁾. 검정색은 성적 매력을 가지는 색상이며, 사람을 야위어 보이게 하고 얼굴을 돋보이게 하며, 성숙함과 강렬함을 제시하는 색상이다.

사악하면서 선정적인 의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이국적인 매력과 귀족적인 질병 그리고 죽음, 성적인 모호함을 모두 결합시킨 드라클라<그림 12>는 성적으로 이중성의 소유자로서 여성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젊은 남자에게도 접근하며, 색정적으로 약탈하는 잔인한 인물로, 바닥까지 오는 길이의 검정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박쥐같은 검은 모자를 쓰고 아주 두드러지게 인상적으로 보인다. 드라클



<그림 12> 영화속에서의 드라클라

라의 공격은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며 그것이 반복되면 강간당한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이 파리한 혈색을 가진 검은 머리의 사람이 검정색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되며 파괴적인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된다⁴⁸⁾.

19세기 유럽과 영국에서 다수의 그림들은 여성들의 애도의 검정색을 명백히 에로틱한 함축을 가진 감정적인 주제로 택했는데, <그림 13>⁴⁹⁾으로부터 보여지듯이 무도장에서 인기를 끄는 화려한 행동으로서 검정색을 착용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다⁵⁰⁾.

역사적으로 볼 때, 검정색이 지닌 관능성은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검정색이 지닌 다른 이미지들만큼 강하게 부각되지는 못했으며, 19세기에 와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여 검정색이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색상으로 인식된 20세기에 더욱 두드러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은 빛의 영향으로 화려함의 이미지를 주는 재질인 벨벳이나 실크로 되어 있고, 신체 부위 중

47) Valerie Steele, *Fetish: Fashion, Sex & Power*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90-191.

48) Lurie, op. cit., p.242.

49) Sargent의 이 그림은 앞이 깊게 파인 하트 모양의 바디스로 된 드레스를 착용함으로써 유혹적으로 몸을 드러내고 있으며 매력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도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프로페셔널한 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그림이 1884년 파리에서 전시되었을 때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스캔들을 일으켰다. (A. Ribeiro, *Dress and Morality* (London: B.T. Batsford, 1986), p.143.)

50) Hollander, op. cit., p. 377.



〈그림 13〉 John singer Sargent, Madame X, 1884.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옷이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4. 금욕성

금욕성⁵¹⁾은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로서, 종교상으로는 육체의 수요를 끊고 성욕을 억압하는 것을 구원받는 필요 조건으로 하고, 윤리상·철학상으로는 성욕을 비롯하여 명예, 이익, 지위 등 세속적인 욕망을 억압하거나 없앴으로써 도덕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는⁵²⁾ 금욕주의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검정색이 지닌 금욕성의 이미지는 중세부터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전시대에 걸쳐 사회와 문화에 가장 깊이 관여한 기독교 교회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죽음에 대한 항구적인 생각을 새겨 놓았으



〈그림 14〉 15세기 성직자의 의상

며⁵³⁾, 그것은 중세인들에게 생활에서 삶에 대한 공포,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한 거부인 금욕주의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⁵⁴⁾. 따라서 금욕성은 다른 외부적 요인들과의 관련을 통해 복식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식사학자들이 등회하는 사실은 5-11세기의 전 유럽에서 전형적인 기독교 금욕주의가 지속적으로 남녀 모두의 옷 입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⁵⁵⁾. 여기에서 검정색은 고대의 종교와 세속적인 금욕주의와 관능적인 생활에 대한 거부와 관련되었으므로 승려와 고행자, 사제와 학자들은 자주 검정색의 옷을 입었다. 서구 문화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의 상징적 의미에서 검정색은 고난을 뜻하고 세속적 욕구를 은폐하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의상은 검정색이었다. 금욕성을 반영하는 중세의 의상〈그림 14〉은 기독교적인 정숙의 의미에서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주로 검정색의 실루엣이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념의 영향으로 현세에서의 물질적 만족을 죄악시키고 내세 위주의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건한 색상인 검정색의 의상을 주로

51) 본 연구에서는 검정색이 가지는 금욕적이고 겸손한 이미지와 죄악, 검소, 절약, 비천함의 이미지를 모두 금욕성의 범주로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52) 김태연, "중세동 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25.

53) J. Huizinga, Le Déclin du Moyen Age.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166.

54) Wilson, op. cit., p.21.

55) Ibid., p.18.

소박과 검소의 상징으로 착용했다⁵⁶⁾.

17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루이 14세의 왕권 확장으로 네덜란드의 시민적인 수수한 경향이 없어지고 대신 궁정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의상이 다시 유행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은 검소한 복장을 계속 유지했으며, 이들은 네덜란드인의 의상을 바탕으로 이것을 더욱 검소하게 발전시킴으로써 17세기 후반의 화려한 바로크 의상과 대조를 이루었다.

19세기에 부르주아의 성장은 검소와 절제라는 노동 이상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검정색을 착용한 사업가나 전문직 남성들은 야하게 치장한 꾸뛰리에, 심지어는 르네상스 플로렌스의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인들과는 사뭇 다른 윤리를 표현했다.⁵⁷⁾ 브로케이드와 실크, 벨벳, 레이스와 같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교한 원단들로부터 평직으로의 대체, 밝고 다채로운 것으로부터 딱딱하고 어두운 색채로의 대체와 함께 전시대의 경향은 바뀌었고,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은 복식의 도덕성을 확립하였다.⁵⁸⁾ 그들은 도덕상의 거부를 색채의 정치적인 거부로 결부시켰다. 이상적으로 성직자의 것 같은 부르주아의 다소 딱딱한 검정색 수트는 그들 신체를 숨겨 주었고, 착용자를 신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⁵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정색이 가진 절제, 금욕, 수수함의 이미지로 인하여 검정색은 복식사에서 금욕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채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금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대표적인 특질을 살펴보면, 우선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축소시키고 숨기는

형태로서 빛을 반사하지 않는 거친 질감이나 수수한 소재로 되어 있으며, 인체를 은폐시키고 몸전체를 감싸며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되어있고 검정색의 모자까지 함께 착용하기도 했다.

5. 비애성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에 대해 고뇌와 슬픔에 머무르게 되는 감정이 비애성이며, 이와 유사한 미적 범주로는 비장미가 있다. 최수현(1994)은 복식에서 인간의 고뇌와 그 초월의 비장미를 느끼게 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색채 감정이라고 했으며⁶⁰⁾, 그 중에서도 검정색에서 비애성이 가장 잘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검정색은 지하왕국과 상실을 나타내는 이교도적인 기호이며 영원한 저주의 색상이고 '정의로움의 태양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 영혼의 정신적 어둠'⁶¹⁾을 상징하는 색상이다. 그리고 밤의 암흑의 어둠, 죽음의 영원한 어둠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수 천년 동안 이 색은 슬픔과 죄악, 죽음을 나타내 왔으며, 고대 신화에서 죽음의 실체는 검은 담비로 된 도포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⁶²⁾. 슬픔의 색상은 죽음 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되었거나 삶에서 죽음으로의 변화를 도와주는 마술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착용되었다⁶³⁾. Jehan은 검정색을 슬픔, 땅과 우울함의 색상, 가장 겸손한 색상으로 묘사했으며, 그래서 검정색이 애도자와 승려에 의해 착용되었다고 했다⁶⁴⁾.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56) Lurie, op. cit., p.178.

57) Wilson, op. cit., p.30.

58) Philippe Perrot, Fashioning the Bourgeoisie: A History of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30.

59) Ibid., p.32.

60) 竹内敏雄, op. cit., p.23.

61) Hope and Walch, op. cit., p.211.

62) Lurie, op. cit., p.176.

63) Hope and Walch, op. cit., p.211.

검정색 의상에서는 죽음과 슬픔의 비애미를 느끼며, 수도자의 복식과 성직자를 위한 종교 복식에서의 검정색 의상에서는 고뇌를 초월하고 신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비장미를 느낄 수 있다⁶⁵⁾.

검정색은 유럽에서 처음에는 죽음의 색상으로서 시작했고 장례식을 위해서 적합한 색상이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관습은 지중해의 고대 풍습의 유산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장례 행렬은 검정색 의상을 착용했고 로마에서 귀족은 평민이 평상복으로 착용한 검정색의 토가 풀라(Toga Pulla)를 상복으로 착용하였다⁶⁶⁾. 16세기와 17세기 이전에는 상복의 에티켓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애도는 수수한 색상과 장식 없는 의복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래서 검정색, 흰색, 청회색, 보라색 등이 착용되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17세기에는 상(喪)의 관습이 성문화되었으며, 그래서 궁중의 장례 의식에서 왕자는 검정색 옷을 착용했고 조문객들 역시 검정색을 착용했다.⁶⁷⁾

19세기의 낭만주의 시인 Alfred de Musset는 '우리 시대의 남성들이 착용하는 이 검정색 의상은 슬픔과 애도의 지독한 상징이다'라고 말했다⁶⁸⁾. 19세기의 남성들은 멋진 종류의 애도용 의상을 원했고, 그 결과 19세기는 장례식 같아 보였으며⁶⁹⁾. Balzac은 '우리는 장례식에서의 많은 사람들처럼 모두 검정색으로 차려입는다'라고 묘사했다⁷⁰⁾. 이렇듯이 19세기를 통해 상복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모든 연령대의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부르주아는 이전

보다 더욱 규모가 커지고 번영하였기에 장례의식은 '과시적 소비'보다 더 빅토리아 시대의 복음주의 감성의 심각함과 일반화된 문화의 히스테리를 모두 표현했다.<그림 15>는 19세기의 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5> Gustave Courbet, Burial at Ornans, 18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애성은 검정색이 고대부터 지녀온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미지이며, 현대까지 주로 서양에서 그 이미지가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비애성과 비장미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공통적인 특질을 살펴보면 슬픔과 애도의 의미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어주는 검정색의 특성이 강조되어 주로 빛을 잃은 무광택의 소재로 되어있으며, 베일이나 후드, 장갑 등과 함께 긴 옷으로 몸뿐만 아니라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은폐형 의상이었다.

IV. 요약 및 결론

고대로부터 검정색은 흰색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색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생명과 관련

64) Harvey, op. cit., p.55.

65) 최수현, op. cit., p.24.

66) Harvey, op. cit., p.42.

67) Boucher, op. cit., p.286.

68)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92.

69) 일상복과 상복의 차이점은 가장 상류 사회에서조차도 사실상 단추가 더 달리느냐 덜 달리느냐의 문제일 정도로 19세기의 일상복과 상복은 유사했다. (Harvey, op. cit., p.177.)

70) Ibid., pp.25-26.

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색상으로 알려져 왔다. 검정색의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가 변화하게 되어 현대에 와서는 보다 다양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검정색은 복식이라는 대상을 통해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부정적 측면의 이미지 외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패션 색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어 검정색은 상복과 사제나 성직자의 의상에 사용되었으며, 유럽에서 패션을 인식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에 와서야 검정색에 대해 미적인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검정색 의상이 본격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했다. 15세기 버건디 궁정, 15·16세기의 베니스, 16세기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등과 같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에 검정색을 패션으로 수용했으며, 그런 시기의 유명한 화가들과 소설가들의 작품을 통해 검정색 의상이 권위적이고 위엄적이거나 우울하기도 하며 우아하기도 하고 성적인 매력을 전달하거나 겸소하고 금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검정색은 복식이라는 대상을 통해 검정색의 일반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된 비애성과 금욕성의 두가지 이미지와, 미적인 의미가 부여된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의 세가지 이미지를 더한 다섯가지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색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미적 특성으로 인해 검정색이 복식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패션 색상으로 인식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은주(1997),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 송명희(199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1992),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아르데코 시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竹内敏雄 『미학·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역(1993), 서울: 미진사.
- Berger, J., Way of Seeing, 편집부 역(1993), 『이미지』, 서울: 동문선.
- Birren, F., 『색채심리』, 김화중 역(1993), 서울: 동국출판사.
- Birren, F., Color and Human Response, 김전한 역(1996),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사.
- Boucher, F.(1987), 20,000 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
- Charnay, Y.(1997), “색채의 노래:색채의 구성.” 한국의류학회 1997학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Harvey, J.(1996), Me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lander, A.(1993), Seeing Through Cloth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pe, A. and Walch, M.(1990), The Color Compendium, N.Y.: Van Nostrand Reinhold.
- Lurie, A.,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역(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ABSTRACT

The Image of Black Expressed in Western Dress

- From Renaissance to 19C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bstract the image from black dress, which has been favored

by many people regardless of the times and examine it throughout the history of dress and thereby clearly define the images that black implies in dress.

Color image is a visual symbol, an image that forms through a combination of visual stimulus created by color, coupled with all the external factors related to it. Black is a one-dimensional color, of which the impact is subjective to its energy, which depends on light reflected on the object, and its texture. Therefore, black projects different images, depending on its surroundings.

In general, black has had negative connotations in the Western culture. In dress, however, it has implied other various images different from the general negative ones. By combining general images of black and those expressed in dress, major images of black were categorized into dignity, elegance, eroticism, asceticism and tragedy.

Dignity is a category similar to the sublime. Dress with dignity has sharp contours and is generally made of velvet or silk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their splendor and voluminous-

ness, exaggerating the body of a person wearing it. Such costume is mostly found in powerful countries in history such as Burgundy Court in the 15C, Spain in the 16C, Netherlands in the 17C. Elegance evokes grace and beautifulness. It includes elegance, grace, beauty and dandyism as sub-categories. Black dress with elegance is made of velvet or silk. Good examples are dandies' black costume and Ladies black and white dresses in the 19C. Eroticism is an image which expresses sexual attractiveness. Costume with eroticism is made of velvet or silk, which project sumptuousness through reflection. Such costumes expose parts of the body or are tightly tailored in order to emphasize body contours. Asceticism means restraint from physical and mental desires. Costume with asceticism makes a person wearing it look smaller by covering the whole body. Puritans' black dresses and Bourgeoisie's black suit are good examples. Tragedy is anguish, sorrow. Black costume with grievous feelings such as mourning dresses is made of lusterless textile concealing most of the body except for the face.